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우리 나라팀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쳤었다.

아시아여자축구의 폐권을 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과 일본팀 사이의 결승경기가 1일에 진행되었다.

경기마다에서 련전연승하며 막강한 실력을 보여준 우리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하여 많은 관람자들과 축구전문가들, 애호가들이 경기장으로 모여왔다.

경기는 우리 팀의 먼저 차기로 시작되었다.

량팀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도를 살리면서 우승을 위해 맹활약하였다.

일본팀선수들이 개인기술에 의한 돌파를 시도하는데 대응하여 우리 선수들은 높은 집단력과 재빠른 기동으로 상대팀의 공격을 제압하면서 역습속공의 기회를 노렸다.

경기시간 12분경 공격마다 오른쪽에서 넘어온 공을 혼전속에서

12번 김윤미선수가 멋들어지게 차넣어 일본팀꼴문을 열어제겼다.

실점을 만회해보려고 일본팀선수들이 반공격으로 나오는데 맞게 우리 선수들은 앞선에서부터

공을 헐저지 장악하고 중장거리 련락으로 경기력을 넓히면서 경기를 여유있게 운영해나갔다.

일본팀은 득점을 해보려고 부단히 시도하였으나 우리 팀의 잘 째인 방어진을 뛰지 못하였다.

전반전은 1:0으로 우리 팀이 앞선 가운데 끝났다.

후반전은 더욱 치열하였다.

우리 팀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공격속도를 높였다.

경기시간 52분경 상대팀 방어수의 뒤 공간으로 걸게 넘어오는

공을 주장인 10번 라은심선수가 빠른 빼물기로 일본선수를 멀구하고 강하게 차넣어 또다시 득점하였다.

우리 팀은 경기시간 55분경 어렵게도 한점을 내주었다.

그러나 경기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쥔 우리 팀의 맹공격으로 하여 일본선수들은 다급한 나머지 경기를 동을 끊고 퍼동에 빠져였다.

경기시간 87분경 14번 전명화선수가 공격마다 몰고나오다가 원쪽으로 길속이 절리준 공을 2번 윤성미선수가 넘겨받아 문앞으로 길게 련락해주었다.

순간 3번 허운별선수가 돌입하면서 머리받기로 또다시 통쾌하

게 득점하였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팀이 일본팀을 3:1로 압승하였다.

경기마감을 알리는 주심의 호

각소리가 울리자 우리 선수들은 열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구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타승한 우리 선수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축구선

수들에게 영예의 금메달이 수여되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람홍색 꽂화국기가 높이 올랐다.

우리 나라축구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아시아의 축구강팀, 축구강자로 자란 자기들의 강의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수준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본사기자



조선팀의 역습속공은 매우 높은 수준이였다

일본통신이 보도

일본의 지지통신이 2일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이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여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쟁취한 소식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경기상황을 전하면서 다

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기마감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리자 일본여자축구팀 선수들은 경기장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났다.

『1:3』, 완전한 패배였다.

본사기자

일본팀의 주장은 조선팀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강한지는 알고있었다. 그들의 역습속공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하였다.

경기마감을 알리는 주심의 호

북은 강하였다

조선언론들 보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련전연승하고 있는 우리 여자축구팀이 남조선팀을 2:1로 타승하고 결승경기에 진출한 소식을 9월 30일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현대일보』, 『MBC』, 『한국일보』, 『국민일보』, 『동일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우리 여자축구팀이 29일 진행된 준결승경기에서 남조선여자축구팀을 2:1로 이겼다고 전하였다.

한 인터넷신문은 남조선여자축구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북에 대한 공포증을 이겨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팀은 2010년 광주대회에서도 북과 맞붙었다.

당시 완패하였다. 4년 만의 재대결에서 설욕을 노렸지만 북은 강하였다.

2회 연속 고배를 마셨다.

1990년 베이징대회(0:7페), 2002년 부산대회(0:2페), 2006년 도하대회(1:1페)까지 포함하면 아시아경기에서만 북에 5령패를 당하였다.

『한국』이 고개를 떨구었다. 인터넷신문 『노컷뉴스』는 남조선팀이 전반전 12분경에 선제

골을 넣었지만 36분경 북측팀에 동점꼴을 내준데 이어 후반전이 지나고 주심시간에 결승꼴을 내주었다고 전하였다.

우리 여자축구팀의 경기성과에 대해 남조선여자축구팀 감독은 북은 『상당히 공격과 방어의 전환이 빠르고 압박도 강하다. 체력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울 부분이다. 그 부분이 뛰어나다. 세계대회에 가서도 북측선수단이 좋은 경기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북남선언을 거역하고 사대매국, 동족대결에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대결책으로 북남관계의 파국상태가 더욱더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서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을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평양에서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힘 있게 표시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전로를 밝혀준 특기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10.4선언이 발표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고 조국통일운동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적화와 단합의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번역무리인 리명박 『정권』에 이어 통장한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하여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환희와 락관을 북돌아주던 6.15시대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아득한 파고로 되었으며 조선반도에는 적대와 대결의 험악한 랭기가 무겁게 간돌고있다.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북남사이의 모든 합의사항들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주구하고 있는 박근혜폐당은 최근에는 유엔에서 우리의 핵파 『인권문제』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정면도전함으로써 드디어 추악한 대결적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박근혜의 망동을 『대화의 문을 닫아야만 추래』, 『대결정책의 최고정점』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파괴에 빠뜨린 역적폐당을 준렬히 단죄 규탄해나서고있다.

오늘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현속

되는 무모한 도발로 하여 폭발천아의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있으며 그 전도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서로 뜻과 힘을 합쳐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정당한 북남선언이 있으면서도 이처럼 북남관계가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태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역사적인 10.4선언발표기념일을 맞으며 북남공동선언들을 무참히 유린말살하고 북남관계를 극복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고있는 피폐당에 대한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합쳐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1. 민족의 총의를 반역하는 남조선언들을 거역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것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지 못할것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의 출발점이며 시금석이다.

세 세기 북남관계의 변천사는 북남쌍방이 공동선언에 충실했을 때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유린하면 겉잡을 수 없는 대결과 파국의 낭비까지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응변해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유일무이한 통일대강이 고집천령인 북남선언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온 겨레의 통일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더우기 힘을 놓은 대결과 평화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온 겨레의 통일기록이다.

박근혜당이 기회만 생기면 체면도 칭피도 무릅쓰고 외세에게 민족문제를 청탁하는 구차한 놀음에 매달리고있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지금도 박근혜와 그 졸개들은 해외를 뻔질나게 싸다니며 민족의 궁지이고 자랑인 우리의 자위적핵책 『제기』 시켜달라고 목이 려지도록 구걸질해대고 있으며 남조선을 민생의 불보지, 『현대판야만사회』로 전락시킨 주제에 우리 그 무슨 『인권문제』를 국제화 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미국에 『통일준비』를 할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아양을 떠는 가련한 친미주군도. 그 어떤 현실성도 없는 『세계평화공원』이라는 것을 우엔에까지 들고가 도와달라고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요사를 부리며 매국족무리도 다른아닌 박근혜당이다.

북과 남이 마주앉아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를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론의조차 할수 없고 상전의 저시가 없이는 북남관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남조선당국의 친미꼴종자세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것이다.

이러한 극악한 사대매국행위가 통일은 고사하고 온 겨레에게 더 큰 불행파재를 몰아올것은 절보듯 명백하다.

찬란한 문화와 역사, 슬기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절대로 외세에 자기의 운명을 내맡길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무엇이나 외세에 의거하여 명줄을 부지하고 있는 오늘의 망국병을 버리고 이제라도 반민족적인 사대매국행위를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주동이 되고 사람

연습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동족대결을 청탁하는 역겨운 외세초종을 늘어도 그만두어야 한다.

3.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극악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무자비한 철퇴를 내릴것이다.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보도록 적대행위는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기본요인이다.

우리는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판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에 서로 적대행위를 중지할것을 거듭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해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동족을 모여종상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피폐당의 적대행위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남조선당국을 부터 앞장서서 로를 윤활할것이 아니라 접권자들자신부터 동족을 모해하고 종상하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온갖 잡쓰레기들의 반공화국방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파고불문의 원칙에서 순하고 함께 나갈것이지만 우리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그에 전도전에서는 자들파는 끝까지 결판을 보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편집장이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옥에 거제의 통일지향에 도전하여 끝끝내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임기내내 가증스러운 동족대결을 일삼아 그 민족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허명박여도의 전철을 밟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을 거역하고 사대매국, 동족대결에 매돌려서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일의 번합없는 리정표로 삼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며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우리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전동이 아니라 악랄하다 해도 애국에 죽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밀에 만난을 이겨내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것이다.

박근혜집권폐당이 주동이 되고 사람 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주제103(2014)년 10월 2일 평양

위대한 장정일장군님은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하나로 된 통일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고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헌신한 흐름을 마련해 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세월의 년륜을 더 쌓으며 분열의 뼈아픈 비극을 당하는 겨레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철감하시며 나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고 하시며 열화같은 민족애, 동포애로 온 겨레를 조국통일 성업실현에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애, 통일의지는 그처럼 강렬하고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꽉 차있었다. 사색과 활동의 첫 자리에 조국통일을 놓으셨기에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물을 절저히 관찰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어자!》를 비롯한 고전적으로 작품들을 발표하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장실현에 온 민족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맹방한 새 세기의 분수령에 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6.15시대를 개척하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의 요구를 명철하게 해야리라고 또다시 평양에서 혁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와 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겨레에게 민족통일의 밝은 대강을 안겨주시였다.

평양상봉의 나날 장군님께서는

10월의 사변, 민족의 환희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며 이번 상봉이 민족적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루하는 좋은 계기로 되도록 할데 대해서며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라는 것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강조 하시였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도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다.

하여 북과 남



역사적인 10.4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판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며 대한 문제, 군사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 통일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접대성되고 포괄적으로 밝혀진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

게 되었다.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10.4선언의 채택은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 류를 다시 긍지동께 한 민족사적사변이였다.

10월의 사변에 대해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계,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은 《역사적인 사변》, 《10.4선언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분수

령이 되었다》고 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미국 CNN TV방송, 프랑스 AFP통신, 일본 지지통신, 중국 신화통신, 로씨야 이파르-파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평양수뇌상봉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주도하였다》, 《선언발표로 조선반도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김정일의 뜻이다》고 광범히 보도하였다.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일행을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는 것을 보여준 나날이기도 하였다.

남로 말전하는 북남관계를 달가워하지 않은 미국은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에 친물을 끌어놓으면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그치지 않았으며 남조선의 반통일, 반민족집권세력은 온 겨레가 전폭적으로 저지찬동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면서 북남관계를 나날이 악화시켰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성업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에 철저히 살 때 민족의 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성업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에 철저히 살 때 민족의 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다시 찾아온 이 땅의 10월은 온 겨레를 통일에 국에 부른다.

본사기자 주일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께서 금강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신 14돐 기념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께서 금강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신 14돐 기념행사가 9월 30일 현지에 서 있었다.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친필비에 끌어온 꽃과 구나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금강산혁명사적관을 찾은 그들은 금강산을 인민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꾸려주시려고 온갖 고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한 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께서 금강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신 14돐 기념집회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비 앞에서 진행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송고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기념집회가 시작되었다.

황호영 금강산관광특구지

도국 국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금강산지구에 현지지도의 자축을 새기고

『2000. 9. 30

김정일

국제관광특구 금강산에서.』

라는 친필을 남겨주시었다고

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서 금강산을 세계적인 명승지,

관광지로 꾸리기 위해 애

국현신의 로고를 바쳐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송고한

우리의 사회주의가 이 세상 제일입니다

내 나라의 창공높이 펼펼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 바라볼수록 가슴은 벅차오르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저주로운 남조선땅에서 수십년 육중 고초로 꺼져가던 『숨쉬는 화석』들이 혁사적인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조국의 품에 안겨 어느덧 14년, 우리들이

신념과 의지의 강자는 깊은 칭호 속에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복된 삶을 누려온 지난 세월은 인생과 투쟁의 진리를 더 깊이 새겨안은 깨달음의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대통운과 세인을 놀래우는 조선속도로 승승

장구하며 강성부흥을 앞당겨가는 눈부신 현실앞에 누구보다 경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리상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편연성에 대한 확신, 그것은 우리들의 한생의 총화이기도 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망국노의 서러움도, 분렬민족의 아픔도 겪어보고 갖은 악형과 유혹의 우고도 이겨낸 우리들입니다.

소작농, 품팔이군, 자산가 지어 조선봉건왕조 량반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출신과 경력으로 갈라진 조국의 남파 북에서도 살아보았으니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셈입니다.

그러니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야말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북파 남 두 제도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는 당당한 혁사의 중견자, 시대의 중인인 것입니다.

1

우리가 공화국남반부에 있을 때 식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북은 앞으로 잘될 일만 있고 남은 안될 일만 남았다.』

한마디로 날로 흥하는 북이요, 망해 가는 남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그 말의 지당함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나날이 흥해가고 있습니다.

『봉기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말이 동서고금의 철리로 되고있듯이 인간의 힘과 사회발전의 원천은 단합이며 그 최고경지는 일심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사회가 하나의 뜻으로 풍치고 협연의 정으로 다져진 정치사상강국, 일심단결의 조국이 바로 우리 공화국입니다.

령도자는 위대한 사상과 리념으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친어버이의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펴 존엄높고 빛나는 삶을 안겨줍니다.

천만군민은 배우같은 충정과 일편단심으로 령도자를 밟았고 결사옹위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정책을 신념으로 삼고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결사관철합니다.

하기에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야말로 그 어떤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위력한 무기라고 세상사람들이 격찬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홍하는 우리 사회주의의 원동력인 일심단결이야말로 그 누가 가질수도 흥내낼수도 없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특산』이고 『특허』라고 우리는 궁지높이 말합니다.

오늘 공화국남반부에서는 사회가 갈아리 짖기고 흘어져 무너져간다는 아우성이 높아가고있습니다.

극단한 개인주의와 황금만능, 악우강식을 생리로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간의 신뢰와 호혜, 협력은 애당초 생활할수 없습니다.

권력경탈과 유지, 당파의 리익과 사욕추구가 제일목표인 남조선정치권이 그 진렬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만 보아도 서로 대립하여 정쟁만 일삼으니 『반쪽국회』, 있으나마나하니 『식물국회』, 폭력세계의 아카다툼과 주먹다짐이 끝무하니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불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로대중의 요구와 리의 같은것은 판세상의 일입니다. 오죽하면 몇해 전 로동운

동아출신의 한 『국회』의 의원이 경제적예속을 더욱 심화시켜 인민들을 빙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날치기처리를 반대하여 최루탄까지 터뜨리며 필사적으로 항거하였겠습니까.

비단 정치판만이 아닙니다.

당국과 근로대중, 자본가와 로동자, 남성과 여성, 로년층과 젊은층 등 계급과 계층이란 말할것도 없고 전라도와 경상도처럼 지역들간에도 대립과 갈등, 반복과 불신이 팽배하니 애당초 학파 협조는 바랄수 없습니다.

최근 폐허군에서 련이어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은 또 얼마나 사람들을 경악케 합니까.

비인간적인 기합과 따돌림, 구타에 시달리던 사병이 분노를 폭발시켜 어려운 상관과 동료들을 사살한 힘병장 충격사건, 상관들이 부하를 놀림감으로 삼아 갖은 모욕을 일삼아 처참하게 때려죽인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국도의 대립과 폭력이 일상화된 폐허군내에서는 『적보다 아군이 더 무섭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오고있으니 그런 오합지졸에서 어찌 전투력을 론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걸잡을 수 없이 와해되고 붕괴되어 망조가 드는 남조선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만방에 멀치는 드높은 조엄과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흥해가고있습니다.

인간의 뜻한 삶과 궁지는 나라의 존엄과 영광속에 빛납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대가 얼마나 강하고 대외적권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적대세력이나 외부의 압력과 간섭에도 끄떡없이 나라의 리익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펴나가는 자주강국, 혁명적원칙과 정의에 힘각하여 바른말을 하고 제 할바를 하는 진짜국이 바로 우리 공화국입니다.

오늘날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이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전략적로선으로 드림없이 판철되고있고 우리 조국은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높은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가 『맞춤형 억제전략』과 핵선태타격을 운운하는데 대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식의 강력한 선제타격을 우리가 선한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할것이라는 호된 폭탄선언도 내렸습니다.

파연 언제, 누가 이렇게 미국에 대고 감히 호령하고 법도를 가르쳐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이렇듯 높은 존엄과 위상은 곧 천만군민의 자랑이며 궁지입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가슴벅찬 자부와 충천하는 기개로 세계를 끌어보면서 존엄높은 정체생활과 평등한 경제생활, 문명하고 고상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것입니다.

근 70년동안 외세에 예속되어 간도쓸개도 다 빼주고 모자라 아직껏 미국을 하내비로 섬기며 온갖 수치와 굴욕을 감수하고있습니다.

시장을 개방해라, 미국산 무기를 사라,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를 늘리라, 반공화국 『핵공조체제』 유지해라, 북침 합동군사연습 확대해라, 미군주도의 『반례로전』에 병력과 자금을 대라...

끊임없이 가해지는 상전의 파렴치한 요구와 강박에 그저 순종할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한 처지입니다.

미국의 횡포한 도청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모든 나라들이 사파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지만 유독 남조선피뢰들만은 항의 한마디 못하였으니 끌먹은 빙어리라고 놀림당한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의 생명과도 같은 군통수권을 미제침략군의 일개 야전사령관이 쥐고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할 대신 되돌려받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있는 식민지노복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 주제에 찍하면 『국력』이 어떻소, 『국적상승』이요 뛰어 하는것이야말로 병든 촌족이 봉황흉내 내는 격의 세상 웃기는 꼴불견입니다.

비전향장기수 일동

당국의 친미사대정책으로 인민들이 당하는 치욕은 이루 다 말할수 없습니다.

몇 해전 서울지하철도 전동차안에서 한 외국인이 무려 4개 역을 통과하는 동안 장내가 떠나갈듯 전화질을 해대는데 짜증난 승객들이 항의하자 『나는 미군장교다.』라고 호통치며 안하무인적으로 놀아대여 사람들이 『미군은 저들을 하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온갖 놓친것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울분을 터친것은 그 단적 실례입니다.

비례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은 인민들을 날마다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450만명이상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실업왕국』, 매일 평균 4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증가율도 세게 첫자리인 『자살왕국』, 매해 8만여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배움을 포기하고 제 집을 못 가진 가정이 700여만세대나 되는 그야말로 근로대중의 생지옥, 인권유린지대가 바로 남조선땅입니다.

지난 4월 련객선침몰로 꽂망을 같은

아이들을 비롯한 300여명이 수장된지 다섯달이 넘도록 유가족들과 각계층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에로부터 남편을 잃으면 과부요, 안해가 없으면 홀아비, 부모를 여의면 고아라고 부르지만 자식 잃은 부모는 그 슬픔을 표현할 말을 고르지 못하여 이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유가족들이 날파 달을 이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펴리지게 웨치고 목숨까지 내진 단식을 해도 폐둬당국은 아예 등을 돌려대고 보수세력을 온갖 조롱과 모독으로 폐명든 가슴들에 란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의 리익과 요구를 무시하고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이런 사회가 어찌 희망을 찾으며 미래를 기대하겠습니까.

국소수 특권층에게만 『천당』이

이고 인민대중에게는 『지옥』인 자본주의 남조선사회가 밀뿌리채 뒤흔들리며 망해 가는 것은 거스를수 없는 필연입니다.

정녕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인민대중의 존엄과 생활을 지켜주고 끌없이 창황한 레일을 열어주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한없이 뜨거운 후대사랑의 숭고한 세계는 사랑의 왕차로 불리우며 오늘도 거리를 누비는 콩우유차에 그대로 어려있고 온 나라 아이들이 즐거부르는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구절이 다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과 행동도, 배짱과 의지도, 인품과 덕망도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푸리 혁명의 최고령도자로,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셨습니다.

대를 이어 받아안은 민족의 대행운속에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만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가시는 곳마다에서 천만군민을 동지, 전우로 불리주시며 언제나 생사운명을 함께 할것이라는 진정성친 믿음과 정을 부어주시고 불철주야의 집무

와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각계층 남녀로소 무릅없이 올리는 편지마다에 사랑과 축복의 친필을 보내주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여 너무도 깊은 나아이에 우리결을 떠난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그들의 묘주는 자신께서 되겠다고 하시며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도록 하시겠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폐허군에서의 련이은 폭행사망사건

으로 공포에 떨며 군대에 안가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자고 부모들에게 출라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속에 최근년간에만도 근 600명의 청소년들이 구만리 앞날을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한디 이 사회에서 어찌 희망을 찾으며 미래를 기대하겠습니까.

최근 아이들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여 너무도 깊은 나아이에 우리결을 떠난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그들의 묘주는 자신께서 되겠다고 하시며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매해 9 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된디 부모들은 노상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면 유괴될수 있다며 입히자거니 말자거니 타투던 부부가 리혼소송까지 하는 회비국이 벌어지겠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여 너무도 깊은 나아이에 우리결을 떠난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그들의 묘주는 자신께서 되겠다고 하시며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매해 9 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된디 부모들은 노상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면 유괴될수 있다며 입히자거니 말자거니 타투던 부부가 리혼소송까지 하는 회비국이 벌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매해 9 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된디 부모들은 노상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면 유괴될수 있다며 입히자거니 말자거니 타투던 부부가 리혼소송까지 하는 회비국이 벌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매해 9 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된디 부모들은 노상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면 유괴될수 있다며 입히자거니 말자거니 타투던 부부가 리혼소송까지 하는 회비국이 벌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매해 9 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된디 부모들은 노상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면 유괴될수 있다며 입히자거니 말자거니 타투던 부부가 리혼소송까지 하는 회비국이 벌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매해 9 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된디 부모들은 노상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면 유괴될수 있다며 입히자거니 말자거니 타투던 부부가 리혼소송까지 하는 회비국이 벌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매해 9 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된디 부모들은 노상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면 유괴될수 있다며 입히자거니 말자거니 타투던 부부가 리혼소송까지 하는 회비국이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제 17 차 아시아 경기 대회 소식

우리 나라의 정학진, 김지성, 장은희 선수들이 남자 자유형 레스링 57kg급 경기와 남자 개인 10m 이동목표 혼합 학생 경기에서 각각 1위를 하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남자 자유형 레스링 57kg급 경기에 출전한 정학진 선수는 예선 경기에서 몽골 선수를 11:8, 준결승 경기에서 일본 선수를 4:2로 이기고 신심드높이 결승의 마당에 나섰다. 그는 경기 시작부터 접촉 순

간 빠른 이동에 의한 정면다리 잡기 공격 등으로 까자흐스만 선수를 제압하였다.

상대 선수는 어떻게 하나 높은 점수를 회복하려 하였지만 경기는 결국 정학진 선수가 8:6으로 앞선 가운데 끝났다.

남자 개인 10m 이동목표 혼합 학생 경기에서 김지성 선수는 고도의 집중성과 정확한 조준에 의한 대단한 격발 등 높은 기술로 1회전에서 96점, 2회전에서 98점, 3회

전파 4회전에서 각각 95점으로 종합 384점을 획득하여 단연 1위를 차지하였다.

녀자권투 75kg급 경기 예선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 선수를 1회전 1분 45초만에 완전 넘어뜨리기로 준결승 경기에서 까자흐스탄 선수를 3: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누른 장은희 선수는 결승 경기에서 중국 선수와 승패를 다루었다.

빠른 좌우 이동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좌절시키면서 앞 손기만에 의한 뒤손 연결 타

격, 울려치기 등 련속 강타를 들이댐으로써 장은희 선수는 중국 선수를 2:1로 이기고 1위를 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수여되고 국가의 장중한 선물이 올리는 속에 람홍색 공화국기가 높이 올랐다.

한편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사격 선수들은 남자 단체 10m 이동목표 혼합 학생 경기에서



정학진선수



김지성선수



장은희선수

9월 29일 남조선의 인터네트 신문 『통일뉴스』가 제17차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우리 력기 선수들이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과 관련한 글을 실었다.

글은 북이 이번 대회 력기 종목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며 금메달만도 총 15개 중 4개를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북의 력기 능력은 메달 수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번 대회에서 무려 어려운 세계 대회를 수립한 터에서도 파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북이 이렇게 력기 강국이

북이 력기 강국이 된 비결

남조선 언론이 강조

된 비결은 무엇인가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번에 북의 선수들은 하나님께 사상을 강조하였다.

즉 사상의 힘이 메달을 따게 된 원동력이라는 말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정신력이라는 말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정신력으로만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체력 조건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지원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이 력기에서 세계 강국이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의 체육정책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은 사회주의 협회 제55조

에서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동포와 국방에 기여하는 인간 육성을 위한 체육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는 체육기술 발전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북은 1948년 정권 수립 이전부터 국가 체육을 위한 근본 리념을 수립해 왔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1946년 체육 인대회와 여러 로작들을 통해 체육의 의미를 강조하

시였고 김정일 국방 위원장께서는 체육을 전인민적 사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이에 따라 북은 체육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통하여 로동과 국방에 기여하는 인간 육성을 위한 체육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

글은 계속하여 북이 체육 강국을 목표로 국가 적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북의 체육은 사상과 국가 적지원으로 무장하였다.

본사기자

련속 꼬투리를 펼친다.

본사기자

시였고 김정일 국방 위원장께서는 체육을 전인민적 사업으로 내세우시였다.

본사기자

</

민족에게 화만 불러오는 악당질

사람의 혀는 복과 함께 화도 불러들인다. 이와 관련된 고대 그리스의 우화 『이소프의 혀』가 유명하다.

어느날 이소프의 주인은 초청한 손님들을 푸짐하게 대접하려고 그에게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많이 사오라고 하였다. 이소프가 각종 짐승들의 혀를 잡아 사다가 갖지 료리를 만들어 내놓았는데 손님들은 인자 깊증을 느꼈다. 이에 성이 날대로 난 주인이 이소프에게 짐승보다 좋은 것이 없는가 따지자 이소프는 『주인님,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선 사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혀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렘계를 짓고 문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남을 가르치고 낭득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들에서 나서서 혼사를 하고 혼쟁을 하여 문제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소프의 말을 듣고 난 주인은 그를 단단히 훈내우리라 결심하고 이번에는 제일 나쁜 고기를 사오라고 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이소프는 전파 마찬가지로 각종 짐승들의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주인이 이에 대한 리유를 따지자 그는 사리정연하게 설명을 시작하였다. 『주인님, 사람들은 혀를 가지고 서로 폐대를 돌구어 언쟁을 하고 또 남을 재판하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혀는 때때로 분별과 전쟁의 근원으로 되지요. 뿐 아니라 혀는 때로 오유를 낳게 합니다. 혀를 통해 도시를 파괴하고 살륙을 하고 지어는 신까지 모욕합니다. 그러니 혀야말로 제일 나쁜 것입니다.』

남조선집권자 박근혜가 사대국 노동족대결 광장에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드러내놓았다. 얼마 전 미국에 건너간 박근혜는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한 그 무슨 『기조연설』이라는데서 공화국을 『21세기에 들어와 해시 힘을 한 유일한 범죄국가』이고 북의 혁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펴쳐내다 못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발을 내뱉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인권』문제를 거들며 『국제 사회의 우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느니 하고 기엄을 토하다 못해 누구나 경멸하는 인간쓰레기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너두리까지 늘어놓았다.

박근혜가 남조선에 있는것보다는 치마바람을 일구며 해외나들이를 더 즐기고 그때마다 동족에 대한 악당을 늘어놓는데 이끌이 나 돌아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혁대집권자로서는 처음으로 유엔무대에서 동족을 걸고드는 대결적 망발을 마구 늘어놓은 것은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첨면도 전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재부이다.

박근혜가 『핵포기』 대가로 《경



남조선농민단체들

쌀시장개방책 동에 항의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남조선의 농민단체들이 9월 27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괴뢰당국의 쌀시장개방책에 항의하였다.

단체들은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겠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사람의 몸에 불은 혀는 하

나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복이나 화를 불러들이는 묘

한것이라 하여 예로부터 사

람들은

『한마디의 금언이

긴 목을 구원한다.』, 『짧

은 혀 긴 목의 울가미가 될

수 있다.』며 혀의 신중성을

론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현 집권자

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혀

의 심중함을 막하고 제것

이라고 해서 혀가 나오는

지, 쇼이가 나오는지 분간

하지 못할 정도로 혀바닥을

굴려 겨례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남조선집권자는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

사』라는데서 북의 자주적

이며 자위적인

병진로선을

악의에 차 혀를 뜯으면서 혁문

제와 미자일발문제를 거론

하지 못해 그에 따른 『북도

법』 설까지 떠들어됐다. 뿐만 아니라 『북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이니 뛰어 존엄높은 공화국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깨닫는다. 혀를 포기하면 『영천난대가』가 차례질것이라는 미국의 감언리설에 넘어가 혁을 포기한 베이비의 경우 지금 그 나라에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야만적인 침략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안정되었던 체제를 통해 무너져 종족간의 대립과 알루이 심하고 되고 있으며 그로 하여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실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고 말았다.

그래 박근혜가 이것을 모른단말인가.

미국의 사주밀에 떠드는 박근혜의 『북핵포기』 망발은 힘이 없어 외세에게 나를 빼앗기고 남부녀대하여 이국으로 흘러져 가야 했던 20세기초 우리 민족의 슬픔의 혁사를 또다시 재현하겠다는 쓸개빠진 민족반역행위이다.

박근혜의 이러한 망언들은 9월 24일 유엔총회에서 공식화한 반북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공화국의 혁은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인한 결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박근혜가 이번에 또다시 공화국의 자위적 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하며 『핵포기』에 대해 떠든 것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궤변을 애무듯처럼 따라와온 식민지주구의 가소로운 수작에 불과하다.

도대체 조선반도에서 혁문제를 발

단시키고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을 조

성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이다. 남조선에

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보검을 몇 푼의 염전으로 흥정해 강도에게 넘겨주겠다는 소갈며 리없는 촌아나네의 행실을 방불케 한다.

박근혜가 있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에 대해 떠든 것도 그의 파렴치 성과 대결적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보인 것이다.

오늘 남조선은 『유신』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을

바탕에는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 체제 대결기도를 실현하려는 흥계가 깔려있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한사코 대결하려고 독기를 풍기는 박근혜의 망동은 신통히도 친미주, 반공화국 대결광신자로 악명을 떨치다가 제 명도 못살고 총에 맞아 죽은 『유신』 독재자를 꼭 물었다.

집회에서 너성들의 정다운 말한마디는 이웃간의 화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잘못 놀린 혀바닥은 불화를 조성할 수도 있다.

세대국과 어리석은 『체제동일』 앙방에 환장하여 동족대결의 혀바닥을 허물어 놓려대는 박근혜의 입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적 재난을 불러오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과 언론들이 현 당국자의 도발적 망발이 조선반도정세와 북남관계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틀고

있었던 것은 일정한 시일이 지났다.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박근혜가 지금처럼 계속 외세에 매달려 민족의 존엄을 팔고 동족대결에 광분한다면 혁대결분자들의 불우한 인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광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9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집회가 진행되었다.

『세월』 호참사 유가족들,

농민들, 시민사회단체 성원

들, 시민들을 비롯한 전지역

에서 모여온 각계층 군중 수

만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집권

자가 『세월』 호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참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투쟁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고 언명하였다.

참사진상에 대한 규명이

없이 절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기에 특별법제정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리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연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는 정

치제도로 하여 『인권문제』

란 존립조차 할 수 없는 공화국에 대하여 이어 공지로 공시비질하면서도 너 아니면 나라는 악육강식의 생활법칙이 존재하는 남조선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온갖 반인권 행위들에 대해서는 눈 뜯고 소경처럼 못본체 하였다.

그런가하면 『전시녀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세계가 단죄 규탄하고 있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반인권범죄인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어물쩍 베리었다.

동족에게는 이리,

외세에게는 삼살개

들의 거수기로 전락된 유엔 인권사회가 채택한 그 무슨 『권고사항』을 복이 리행하여야 한다고 주제넘게 운운하다 못해 나중에는 남조선에 『북인권사무소』까지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이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동족에게는 이처럼 피를 본 이리처럼 사납게 달려들던 박근혜이지만 외세에게는 아양이 많았다.

그는 연설이라는데서 그 무슨 혁문제를 둘하면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사용한 것도 모자라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도처에 각종 혁무기를 배포하여 놓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원래 박근혜는 반인민적

악동과 『유신』 파쑈독재부활로 남조선을 21세기 인생지옥, 인권유린의 란무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인권에 대해 일이 계기로 재난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

계가 바라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6.15 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 선언리행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자물쇠를 채운듯 굳게 다물고 동족에 대한 비방과 대결소동에만 열을 올리는 남조선당국자의 행실을 감지하니 하나는 동족에게 화만 불러오는 악청뿐이다. 이것이 계속되는 한 민족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대결과 전쟁뿐이다.

남조선당국자는 대결과 전쟁에만 미쳐남뛰다가 심복의 종에 맞아 비명횡사한 『유신』 독재자를 비롯해 『유신』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혀바닥을 깔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최근 남조선집권자가 제69차 유엔총회 참가를 위한 해외나들이에서 동포들로부터 비방하는 규탄과 랭비, 조소를 받아 꼬불견이 되고 말았다.

방문을 앞두고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는 해외동포들이 『세월』 호집회를 열고 남조선당국자의 반인민적 죄악을 강력히 규탄배격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은 곧 미국을 방문할 남조선당국자가 『추락사』를 걸고 『문구앞에 『경축』』이라는 단어까

지 넣은 구호판을 들었는가

하면 『세월』 호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살려내고 살인마 박근혜는 죽으라는 내용이 담긴 구호판들을 들고 시위를 벌렸다.

그러나 대체국과 그 종종세력

도 모르는 그였기에 사람

이에까지 동포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항의와 규탄을 받았으니 남조선당국자는 이 땅의 까마귀만 도 못한 속물에 불과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특대형범죄로 『대통령』 벙지지를 뒤집어쓰고는 화려했던 『선거공약』은 휴지장처럼 내던 진재부 평화와 무능으로 『세월』 호참사와 같은 특대형사고만 런던하고 오만과 독선, 불통정치로 민족을 완전히 외면한 남조선당국자이다.

뿐만 아니라 북

과 남사이에 화

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바라는 온 민족의 뜨거운 열기로 대처되게 동족대결 광장에서 미쳐돌아가다 못